



“꿈이 자라 60년 - 빛이 되어 100년!”

# 회의록



결	부의장	의장
재		

회의명	제1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시	2024.03.29.(금). 09:30	장소	도익서홀(M402)
안건	1. 학칙 개정(안)		
참석의원	김태순 의장, 김영준 부의장, 강선주 평의원, 이승환 평의원, 이은정 평의원, 김영림 평의원, 동인범 평의원, 박상호 평의원, 이성호 평의원, 공성민 평의원, 오종탁 평의원		
위임의원			
불참의원	최봉문 평의원		
간사	고광언		

## 회의내용

- 성원보고** : 대학평의원회 간사가 재적 평의원 12명 중 출석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개회선언** : 김태순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8조(회의)제3항에 “평의원회 회의는 개최 7일전까지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제14차 대학평의원회는 제13차 대학평의원회에서 결하지 못한 안건으로 2025학년도 편제 및 입학정원조정에 따른 학칙 개정안과 관련되어 있는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입학전형 지원시스템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수시(정시) 모집계획 등을 3월 말까지 입력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집한 회의임을 말하고 제14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하다(09:30).
- 안건 심의: 안건번호 9-14-01 학칙 개정(안)**
  - 의장이 편제 및 입학정원조정(안)을 토대로 입안한 학칙개정(안)을 상정하다.
  - 의장이 제13차 대학평의원회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과정을 설명하고, 먼저 회의장을 떠나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평의원들에게 질의할 내용이나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강선주 평의원이 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가 모집정지된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는

단순히 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시적으로 보면 모집정원이 22명인 여러 학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자율전공학부를 83명으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 많다. 대덕과학문화 센터 매각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입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피력하다.

- 이승환 평의원이 음악대학 성악·뮤지컬학부의 공연기획전공 신설과 관련하여 음대 실용음악학부의 M.P.전공과 문화콘텐츠대학 연극영화영상학부 연기전공과의 유사성 및 전공 간의 이해 상충 그리고 음악대학 내의 부족한 논의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의 모집정지 및 아시아문화학과 신설 불허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다. 정원 총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학과도 인근대학 유사학과의 모집정지 영향으로 신입생 충원을 100%에 이른 경우를 고려한다면 모집정지가 해결책이 아님을 말하다.

○ 의장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사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의사결정은 거수로 표결하였으나 이 안건은 개인적으로 연관된 분도 있으니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임을 선언하다. 투표용지에 찬성은 ○ 반대는 X로 표기하여 의사표명 하기로 하고 간사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것을 명하여 간사가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할 것을 선언하다.

○ 의장이 이성호 조교 평의원에게 개표를 의뢰하다.

○ 이성호 평의원이 개표를 마치고 개표결과 원안 의결 찬성 7표 반대 4표 임을 발표하다.

○ 의장이 학칙 개정안은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111

4. 폐회

○ 의장이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하다(10:02).

*Handwritten signature and notes in red ink.*

위원	의장 김 태 순	부의장 김 영 준	평의원 강 선 주	평의원 공 성 민	평의원 김 영 림	평의원 동 인 범	평의원 박 상 호	평의원 오 종 탁
서명								

위원	평의원 이 성 호	평의원 이 승 환	평의원 이 은 정	평의원 최 봉 문
서명				불참